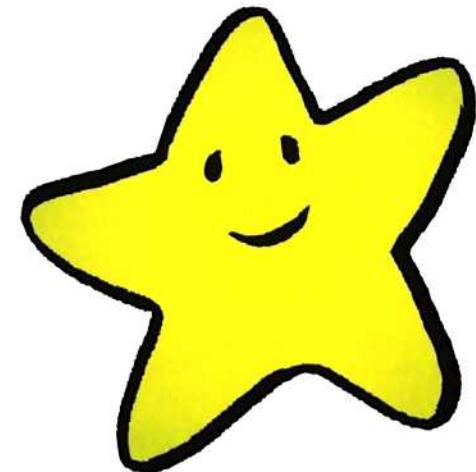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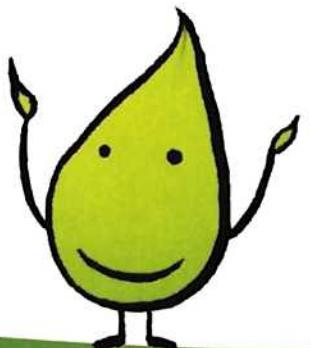
청소년특별회의 추진단 사무국

100-810) 서울 중구 명동2가 50-14 유네스코회관 2층  
연락처 : 02-319-2824~2826 / 팩스 : 02-319-1333



꿈이 있는 사회! 도전하는 청소년  
**2004 청소년특별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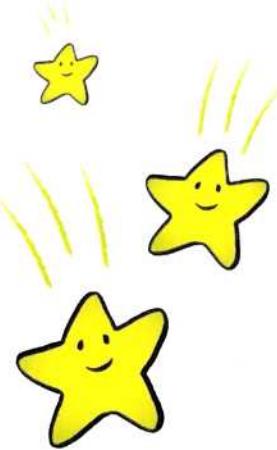
- 일 시 : 2004. 12. 27~29
- 장 소 : 서울교육문화회관
- 주 최 : 청소년특별회의 추진위원회
- 후 원 : 문화관광부



# 청소년특별회의 2004.12.27~29



## '부탁'과 '의견'



이번 한해는 유난히 청소년관련 사건 사고가 많았습니다. 공공연한 비밀이었던 수능 부정이 사실로 드러나 많은 청소년들이 시험을 취소당하고 구속되었으며, 밀양에선 수십 명의 청소년이 1여년간 다른 청소년을 윤간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건 사고를 접하는 많은 성인분들께선 그저 혀를 차시며 '요즘 애들 문제야' 식의 시선만 보낼 뿐, 그들이 '왜 그런 일을 저지르게 됐는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거나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려 하는 노력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언급한 두 사건을 예로 들지 않더라도, 이미 청소년과 관련해서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풀어감에 있어서, 이 사회가 청소년을 바라보는 시각을 조금 바꿔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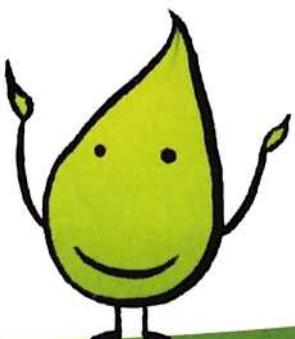
청소년을 바라보는 시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청소년을 '자원으로 보는 시각(Youth as resources)'이며, '희생자로 보는 시각(Youth as victims)'입니다. 청소년을 희생자로 바라보는 관점은 청소년이 사회의 나약한 구성원으로서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힘에 의하여 너무 자주 희생된다고 보며, 청소년들의 권리 보호와 청소년을 점점 악화되는 환경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관점입니다.

이러한 관점으로도 충분하지 않느냐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태껏 청소년은 일련의 '미완의 대기'로서 수동적이어야 하는 존재로 쉽게 치부되곤 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젠 청소년을 자질 있는 인격체로서, 지역사회에 참여하고 봉사할 책임과 권리를 지닌 시민으로서, 스스로 자신의 장점을 개발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회적 관심과 국가적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의 목소리가 단지 '부탁'이 아닌 하나의 '의견'으로 받아들여지려면, 이러한 시각과 인식의 변화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청소년특별회의가 가능하도록 도와주신 모든 분들과 이 자리에 빛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청소년특별회의가 정말 청소년들의 특별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 12월 27일

청소년특별회의 의장 김 갈뫼



그런 벌이 하늘에서 쏟아집니다. 세상을 빛나게 하기 위해



## 청소년이 행복한 나라

먼저 이 자리에 참석한 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들과 지도자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청소년특별회의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문화관광부 정동재 장관님과 청소년보호위원회 임선희 위원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하지는 못했지만 전국의 천백만 청소년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 희망과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세계화·정보화라는 격변의 흐름 속에 있습니다. 이 같은 역사의 흐름은 전 사회적으로 불평등의 심화, 환경의 파괴, 가치관의 혼란이라는 심각한 사회적 역기능 현상들을 낳고 있습니다. 개인과 국가 그리고 전 세계 인류는 이러한 사회적 역기능 현상들을 창조적으로 극복할 때만이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역기능 현상들의 창조적인 극복은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자란다는 전제 아래에서만 가능합니다. 또한 우리 사회의 주인공인 청소년이 공동체적 품성을 갖추고 새 시대를 바르게 이끌어 갈 지혜와 시대에 적합한 삶의 기술을 습득할 때 극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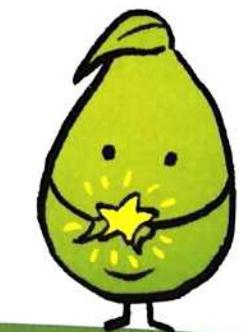
한국사회에서 청소년들은 언제나 보호와 육성의 대상이었을 뿐, 독립된 인격을 가진 삶의 주체로서 진정한 참여의 기회를 보장 받지 못하였습니다. 유엔을 비롯한 많은 국제기구 등에서 청소년의 인권신장과 사회참여 필요성을 끊임없이 제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에서 청소년들의 참여는 상당히 도외시 되어 왔습니다. 청소년특별회의는 이러한 세계적·사회적 조류 속에서 청소년에 대한 무관심과 청소년문제의 심각성 증대에 따른 국민적 관심과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을 깨닫고 청소년 인권에 대한 자각 및 스스로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 등에 참여의 기회를 증대하여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나라, 청소년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 가는 제도적 터전을 마련하고자 하는 노력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금년도 청소년특별회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본 회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청소년들이 자발적이고 주체적으로 참여하였다는 점, 그리고 청소년과 기성세대, 정부와 민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파트너쉽을 구축하여 일구어 낸 공동의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청소년 정책 수립의 획기적 전환점이 될 것이며 청소년 참여의 모델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의 노력으로 건강한 한국의 미래와 우리 청소년들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청소년특별회의가 잘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청소년들에게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초청해 주신 대통령께도 감사를 드리며, 2005년도부터 매년 개최되는 청소년특별회의에 대통령께서 꼭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 12월 27일

청소년특별회의 추진위원장 한 왕상



한 사람이 그 숲과 한 벌을 두 손 모아 밟습니다.



# 청소년특별회의 2004.12.27~29



## 새로운 시대의 주인!

친애하는 청소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처음 개최되는 「청소년특별회의」에 함께 해 주신 청소년지도자 여러분! 먼저 뜻 깊은 청소년특별회의 개최를 여러분과 함께 축하하며 아울러 영예로운 제1기 청소년특별회의 위원이 되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의 청소년정책이 주로 성인들의 일방적 판단에 따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가르치고 지도하고 보호하는 일방적 정책이라고 한다면, 오늘의 청소년특별회의는 청소년들이 스스로 참여하고 만들어 가는 그야말로 청소년 여러분들이 주인이 되는 정책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돌이켜 보면, 1998년도에 수립된 제2차 청소년육성 5개년계획이나 그해 개정된 「청소년현장」에서, 청소년을 "미래의 주역"에서 "오늘의 주역"으로 전환한 이후, 청소년의 참여 확대와 인권신장에 대한 정책이 꾸준히 추진되어 왔습니다만, 이처럼 실질적인 큰 결실을 맺는 계기는 없었다고 봅니다.

참여정부는 21세기 문화의 시대이자 지식정보화 시대를 맞아 청소년들이 독립된 인격체로서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며 밝고 활기찬 창의적인 삶을 개척해 나가도록 하게 함으로써 새 시대의 문화를 창조하고 선도해가는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육성하는 것을 최우선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물론 입시위주의 교육이나 지나친 경쟁심리 등으로 청소년기의 다양한 활동과 의미 있는 생활에는 다소의 제약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만, 여러분 스스로 인권과 권리를 신장하고 폭넓은 체험과 봉사활동 등을 통해 창의력과 올바른 공동체 의식을 향양함으로써 글로벌 시대에 맞는 국제적 경쟁력을 갖춰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정부에서도 여러분들의 활동을 적극 장려하고, 청소년들이 마음껏 문화·예술·체육활동 등에 참여하여 감수성과 창의성을 향양하고 체력을 증진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인재로 성장해 나가도록 지원해 나가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아무쪼록 3일 동안 계속되는 이번 회의를 통해 여러분들이 평소 바라고 느낀 것을 결집하여 더 좋은 결실을 맺기를 기원 합니다. 그리하여 청소년 여러분들의 눈높이에 맞는 진정한 청소년정책이 이 땅에 꽂 피우게 되는 계기가 되도록 역량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분들은 청소년특별회의의 초석을 놓은 위원으로서의 자긍심을 갖고 열심히 활동하여 주시고, 모범적인 생활을 통해 「청소년특별회의」의 위원은 원가 다르다는 인식을 심어주며 차기 추진단 위원의 양성과 지도에도 힘써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이번 특별회의를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오늘이 있기까지 지원해 주신 한완상 위원장님을 비롯, 추진위원과 추진단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번 특별회의가 개최되기까지 애쓰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2004년 12월 27일

문화관광부장관



## 2004년 「청소년특별회의」는 이렇게 진행되었습니다!!!

### 청소년특별회의 추진단 및 추진위원회 구성 (2004. 6.)

2004년 6월에 대통령 청소년특별회의 연구를 수행한 연구진을 중심으로 청소년특별회의 추진단을 구성, 청소년특별회의 추진계획을 마련하여 문화관광부의 승인을 받고 청소년특별회의 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게 되었습니다.

### 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추진단 구성 (2004. 8.)

8월에는 전국의 청소년을 공개모집, 청소년특별회의를 만들어 나갈 청소년추진단 51명을 선발하여 8월 19일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 청소년특별회의 추진단 워크숍 개최 (2004. 8.~9.)

8월에 개최된 1차 워크숍과 9월에 진행된 심화워크숍에서 의제 선정을 위한 지역포럼을 기획하고 청소년특별회의 전체적인 진행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 지역포럼 개최 및 의제 선정 연구 (2004. 9.~11.)

청소년의 목소리를 수렴하기 위해 9월 4일부터 3개월 여간 전국 6개 권역 22개 지역에서 총 35회의 지역포럼을 개최하여 의제 선정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설문조사를 통한 지도자 의견 수렴과 홈페이지 의제 게시판을 통한 의제 선정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였습니다.

### 청소년특별회의 참석청소년 선발 (2004. 11.)

청소년추진단 51명 외 청소년특별회의 참석 청소년 49명을 전국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공개 선발하였습니다.

### 청소년특별회의 예비회의 (2004. 11.)

5개 영역 38개의 의제에 대한 리뷰와 최종의제를 선정하고 청소년특별회의 개최계획을 논의하였습니다.

### 청소년특별회의 구성 (2004. 11.)

청소년특별회의 의장 1명(김갈미), 부의장 4명(9~12세 그룹, 13~16세 그룹, 17~24세 그룹, 소수청소년 그룹)으로 청소년특별회의를 구성하였습니다.



드디어, 가슴에 별을 품습니다.

## 앞으로 「청소년특별회의」는 이렇게 진행될 것입니다!!!

### 청소년특별회의 결의안 제출 및 모니터링 (2004. 12.~)

청소년특별회의에 논의된 의제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하고 관련 정부부처에 전달함으로서 향후 청소년 정책수립에 반영하고 그 결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것입니다.

### 청소년특별회의 평가 및 2005년 청소년특별회의 준비 (2005. 1.~2.)

2004년 청소년특별회의 평가를 통해 청소년특별회의 모델을 개발하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여 2005년 2월 청소년기본법 시행에 따라 「대통령 청소년특별회의」로 거듭날 수 있도록 추진 할 것입니다.





## 청소년특별회의 개최식

- ◆ 추진경과 영상보고
  - ◆ 격려사
  - ◆ 축사
  - ◆ 의사봉 전달
  - ◆ 개회 및 개회사
  - ◆ 2004 청소년특별회의 의제 보고
- 한완상 추진위원장  
정동재 문화관광부장관  
한완상 추진위원장  
김갈뫼 청소년특별회의 의장



## 청소년특별회의 축하행사

- ◆ 주제 : 세상을 바꾸는 청소년의 힘!
- ◆ 전시회 ◀◀◀ 12. 27(월) ~ 12. 29(수)
  - 사진으로 보는 청소년특별회의 추진 경과
  - 청소년 회·노·애·락
  - 자기분야에서 성취를 이룬 청소년 초청 및 관련내용 전시
- ◆ 축하공연 ◀◀◀ 12. 28(화) 19:00~21:00



## 청소년특별회의 주요 일정

### 첫째날 (12월 27일)

- ◆ 회의(1) - 개회식(11:00~12:00)
- ◆ 문화관광부장관 초청 환영 오찬(12:00~13:30)
- ◆ 회의(2) - 국무총리와의 만남(15:00~16:00)
- ◆ 대통령 초청 만찬(18:30~20:00)

### 둘째날 (12월 28일)

- ◆ 회의(3) - 한국 청소년의 삶과 문화(09:30~12:00)
- ◆ 회의(4) - 분과위원회 회의(13:00~15:00)
- ◆ 회의(5) - 청소년의 인권과 참여(15:30~18:00)
- ◆ 2004 청소년특별회의 개최기념 축하공연(19:00~21:00)

### 셋째날 (12월 29일)

- ◆ 회의(6) - 결의안 채택  
폐회



별을 품은 사람들이 세상에 가득해집니다. 따뜻한 별빛으로 세상이 가득해집니다.

## 2004년 청소년특별회의 추진위원회

성명	소속 및 직책	성명	소속 및 직책
한완상(위원장)	대한적십자사 총장	박현성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회장
김형주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선진규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회장
고진화	한나리당 국회의원	조명승	경기대학교 교수
이승희	새천년민주당 국회의원	조혜정	연세대학교 교수
최순영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이형모	(주)시민의신문사 대표이사
정동재	문화관광부 장관	이강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 공동대표
배규한	한국청소년개발원 원장	강대근	아·태국제 이해교육원 원장
임선희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장		

## 2004년 청소년특별회의 추진단

성명	소속	성명	소속
김대근(단장)	아·태국제 이해교육원 원장	송창석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전문위원
김옥순(부단장)	수원대학교 교수	신인순	한국스카우트연맹 과장
김대우	교육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심한기	㈔청소년문화공동체 대표
김 민	순전향대학교 교수	이광호	경기대학교 교수
김영지	한국청소년개발원 연구위원	장동현	홍시단 사무총장
남부원	한국YMCA전국연맹 국장	전성민	미자센터 소장
손의숙	청소년특별회의 추진단 사무국 사무국장	한민호	광복60주년 기념사업단 팀장

## 2004년 청소년특별회의 추진단(청소년)

1	김갈뫼	의장	26	김성규	51	박지희	76	이영민
2	이한규	부의장	27	김성웅	52	박창성	77	이영석
3	이재진	부의장	28	김원영	53	박초롱	78	이영수
4	이장형	부의장	29	김정애	54	박호언	79	이용철
5	문해성	부의장	30	김주연	55	백은경	80	이운석
6	강의식	교육 분과위원장	31	김준웅	56	석영관	81	이재경
7	김 진	보건·복지분과위원장	32	김준형	57	성삼현	82	김민재
8	박은영	노동 분과위원장	33	김자연	58	송병기	83	이지연
9	자운선	인권·참여분과위원장	34	김지희	59	송혜정	84	이태우
10	홍석용	문화·여가분과위원장	35	김태양	60	신기철	85	이무른
11	강한우		36	김해람	61	신준철	86	전경배
12	강해경		37	김현성	62	심성민	87	정재윤
13	강현정		38	김현우	63	안귀령	88	정지혜
14	고선영		39	김혜정	64	엄진하	89	정하빈
15	고승재		40	김효비	65	오현진	90	정호진
16	구태희		41	남진아	66	유은별	91	조기찬
17	기연희		42	남화성	67	유하나	92	조수환
18	김경민		43	노정균	68	윤빛나	93	조완영
19	김근희		44	명현화	69	윤영현	94	주희식
20	김미숙		45	박병구	70	윤지혜	95	차경수
21	김민경		46	박보현	71	윤효민	96	최연
22	김이민경		47	박상열	72	이 길	97	최순희
23	김민지		48	박성배	73	이기우	98	최아름
24	김서현		49	박엄지	74	이봉연	99	하재연
25	김선화		50	박준우	75	이선미	100	황예슬